“불연 이기영은 현실 외면하지 않았다”

한국불교연구원, 이기영 박사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연 이기영(不然 李箕永, 1922~1996)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일갈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쩌면 정의(正義)의 화를 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불연 이기영 박사는 원효 연구에 매진한 세계적 학자이자 재가불교운동을 선도했던 실천적 불교인이었다. 그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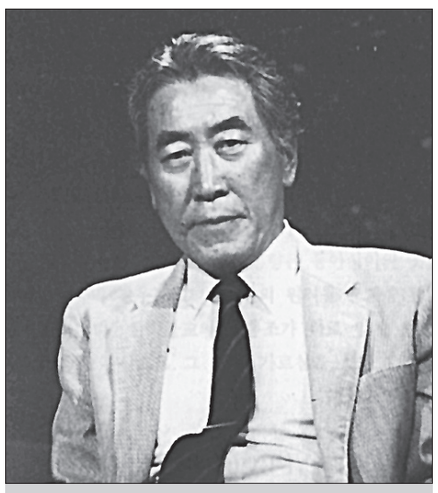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안성두)이 1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보살사상과 재가불교’로 이기영 박사 탄생 100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불연의 행적과 재가불교’ 주제발표에서 이기영 박사의 재가불교사상에 대해 조명했다.

원 교수에 따르면 이기영 박사는 재가불교의 출발점을 민중불교의 선구자인 원효 스님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 원 교수는 “불연은 원효 대사는 모든 사람이 보살이 되는 길을 가르쳤으며, 불교의 핵심 또한 보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법화경〉 ‘비유품’에서 불타(佛陀)는 ‘지금 이 삼계는 다 나의 소유이니, 그 안에 있는 중생은 모두 나의 자식이다. 지금 이곳에는 환란이 많으니 오직 나 혼자만이 능히 구호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교수는 이기영 박사의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을 통해 재가불교운동의 지향점을 살폈다.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은 1977년 출간된 이기영 박사의 수상록으로 그의 사후 1998년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이기영 박사는 저서에서 전 세계가 이기주의적 가축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각축의 주체는 오만한 인간의 야심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대사회의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저버린 종교, 자각을 무시한 종교, 현실을 외면한 종교, 그러한 종교는 기도를 하건 염불을 하건 결국 다 헛된 입장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애, 재가불교 운동 등 조명
불연 “원효, 재가불교 출발점”
“‘현실 외면한 종교는 헛소리’
일갈한 이기영 충고 되새겨야”



불연 **이기영 박사**는 1922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났다. 호는 불연이며, 법명은 서봉이다. 1941년 경성제국대학(現 서울대)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1943년 일제에 의해 징병돼 종군했다. 싱가포르 수용소에 포로로 수용되는 등 고초를 겪다가 1946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국전쟁 이후 대구효성여고에서 역사교사로 재직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 벨기에 루벵대학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 귀국한 후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전임 강사 및 교수로 학문적 역량을 펼쳤다. 〈원효사상〉 등 수많은 명저를 저술하는 등 한국 불교학을 현대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재가불교 육성과 보살정신의 생활화에 힘쓴 실천적 불교인이다. 1996년 11월 별세했다.

이 같은 이기영의 어록에 대해 원 교수는 “마음, 마음의 자각, 공업 · 불공업의 현실에 속한 인간고의 해결은 불법 공능(功能)의 삼위일체”라면서 “재가불교운동은 불연의 이 언설이 해법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주 前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불연 이기영의 주요 행적과 불교적 이상’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 연구 활동과 실천 활동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이기영 박사의 불교연구는 대승불교 · 비교종교 · 한국불교 · 실존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정법으로서의 대승불교와 보살도의 실천에 중점을 둔 원효의 불교사상 연구에 집중”됐다는 게 임 前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임 前 수석연구원은 “이기영 박사는 원효 사상의 핵심은 원효가 표명한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에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불교적 이상으로 제시했다”면서 “박사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현양과 세계화를 추구했으며, 현실사회의 개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사상 개발을 위한 불교학술연구지 〈불교연구〉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이기영 박사의 불교 실천활동은 연구의 연장에서 이뤄졌고 그 기본의 전법에 바탕을 뒀다. 그가 창립한 한국불교연구원이 대표적 사례다. 이기영 박사는 한국불교연구원에서 불교의 지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불교기초과정 강좌를 열었고, 이는 현대 한국불교의 질적 양적 발전의 동력을 제공했다. 연구원 산하에 전국적인 재가불자 단체로 ‘구도회’를 조직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부설 교육기관 ‘원효학당’을 개설해 많은 법사를 배출했다.

임 前 수석연구원은 “이기영 박사는 진리를 증거하고 구현하기 위해 한국에 나툰 현대의 대승보살”이라고 상찬하며 “이는 그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불교연구와 불교실천 활동의 행적이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영 박사는 ‘원효 자신이 제시한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법을 현대에 살려가는 일을 마지막에까지 시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원효불교의 재발견과 한국불교의 방향(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현대 종교문화의 지형과 불교의 미래(송현주 순천향대 교수) △원효의 〈법화종요〉와 요익중생(남동신 서울대 교수) △원효의 보살사상-열반연기론과 무주처열반론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성철 금강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태허 스님 다룬 웹툰 ‘우단사련’ 만나보세요

독립운동가 웹툰 플랫폼
독립닷컴서 연재 시작해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약했던 봉선사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을 다룬 웹툰이 연재를 시작했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11월 10일 의열단 창립 103주년을 기념해 의열단 출신 대한민국임시정부 부부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과 중국인 부인 두쥔훼이와의 혁명과 사랑을 다룬 웹툰 ‘우단사련’ 연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웹툰은 총 18화로 독립운동가 웹툰 전용 플랫폼인 ‘독립닷컴(www.dok-lip.com)’에서 11월 10일 게재를 시작해 매주 3화씩 연재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독립운동가 웹툰을 전파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와 협업하려 했으나 독립운동가 웹툰 작품이 포털이 추구하는 상업적 코드와 배치돼 유관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독립운동가 웹툰 전용 플랫폼 ‘독립닷컴’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회는 “독립닷컴은 ‘우단사련’ 연재를 필두로 이미 제작된 독립운동가 웹툰 작품들을 수집해 플랫폼에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웹툰 연재 종료 시점과 맞춰 웹툰을 만화책으로도 출간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암 김성숙 선생으로 알려진 태허 스님은 의열단, 임시정부 내무차장 · 국무위원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했으며, 해방 후 독재정권에 맞서 신민당 창당 주역으로 활동하다 1969년 4월 12일 동지들이 비를 피하라고 마련해준 ‘피우정’에서 서거했다.

부인 두쥔훼이 여사는 여성 엘리트운동 혁명가로 ‘중국부녀자운동 이론연구’의 선구자다. 중국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요원 및 한국구제총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국적을 초월해 일제 침략을 타도하려 노력했다. 지난 2016년 제71주기 광복절에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신성민 기자

천년 관음성지 낙산사 불상 조명한다

한국미술사연구소, 11월 19일 학술대회

천년 관음기도 도량 낙산사의 불상 조각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1월 19일 오후 1시 ‘천년의 관음성지 화엄종찰 낙산사의 불상 조각’을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낙산사 불교미술의 성격과 금당 전단소조관음보살상의 연구’ 기조 발표로 문을 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낙산사의 불상들에 대한 전문 연구논문들이 소개된다.

이분희 조계종 문화팀장은 ‘낙산사 관음전 건칠관음보살상의 연구’를, 주수완 우석대 교수는 ‘낙산사 이대성 정취보살상의 고찰’, 유미나 원광대 교수는 ‘낙산사 동종보살상의 특징과 의의’를, 문무왕 前 동명대 교수는 ‘낙산사와 의상의 관음신앙’을, 문 명예교수는 ‘선림원지 출토 신라 최고 명작 금동관음보살입상의 의의와 낙산사’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고승희 동국대 외래교수, 이수예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고려대장경 인출본 가치 논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1월 26일 동계학술대회
5회 퇴옹학술상 시상식도

고려대장경 인출본 현황과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권기현)는 11월 26일 오후 1시 부산 고심정사에서 ‘고려대장경 인출본의 현황과 그 가치’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해인사 대장경판과 대방광불화엄경 인출- 남해 부소암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진본)〉권53 사례(한홍익 해인사 종무소 차장) △한국 현대기 1963~68년 고려대장경의 인경과 특징(박용진 국민대 교수) △〈고려대장경〉 인출본 ‘당현시범’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최문희 동아대 강사) △고려 간행 불전(佛典)과 〈고려대장경〉인출본의 일본 전래(최연주 동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에는 강경구 동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이종수 순천대 교수, 전진이 진영철도박물관 학예사, 박광연 동국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5회 퇴옹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퇴옹은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성철 스님의 법호다.

시상식은 삼귀의례와 권기현 회장 개회사, 최연주 퇴옹학술상 선정위원장 선정과정 보고, 고심정사 회주 원택 스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페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